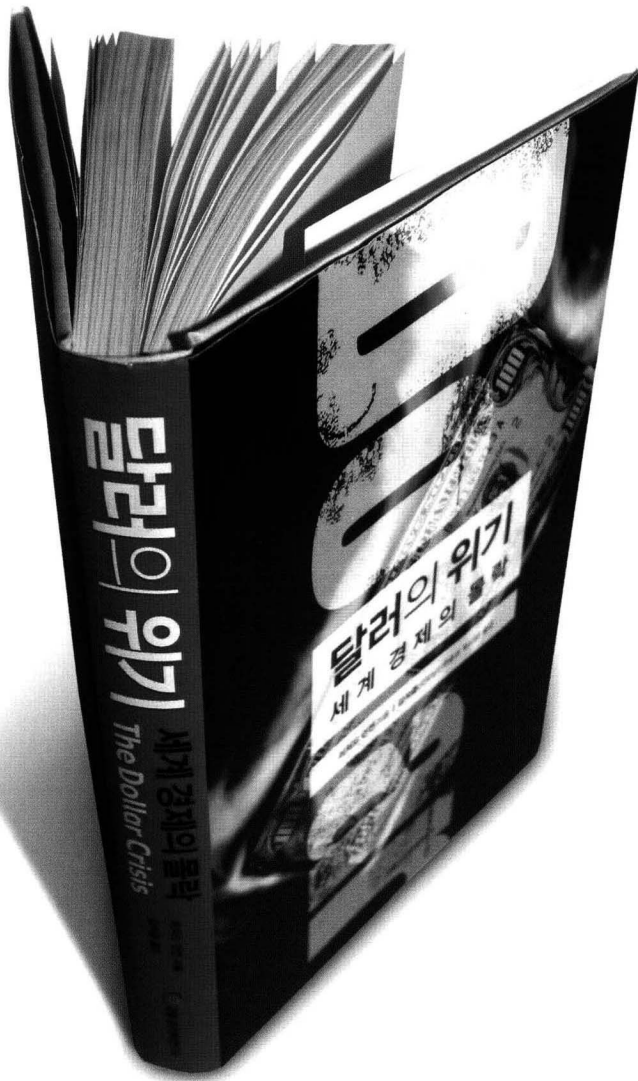


#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예측서’ 에서 찾은 미덕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www.taeri.org](http://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등이 있다.

예언서처럼 위험부담이 높은 책은 없을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예언서일 경우에는 그 위험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예언이 이른 시간 안에 적중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예언이 적중했다면 명성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틀렸을 때의 위험부담이 적중했을 때의 실익보다 훨씬 큰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예언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에는 명성을 잃게 되고, 그 책을 발간한 출판사는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언은 계속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예언으로 명성을 얻은 자에게 세상은 새로운 예언을 요구하며, 반복되는 예언이 모두 적중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기 마련이다. 어느 하나라도 예언이 틀린다면 그 명성은 금방 퇴색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그런데 경제는 항상 예측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예측을 더 요구한다. 모든 경제생활은 미래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급은 판매를 마친 뒤에 이익과 손실이 드러나고, 소비는 이미 구매가 이뤄진 뒤에 효용의 크기가 결정되며, 분배는 애써 일한 다음에 그 보상이 주어진다. 투자는 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손익이 드러나며, 투자 주체의 경제적 생존까지 판가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제인은 항상 예측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며, 비록 곧 틀릴지라도 경제계가 예측을 항상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지금처럼 오를 것을 몇 년 전에 알았다면 큰돈을 벌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식가격이 오르내릴 것을 알아낸다면 돈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쉽게 벌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망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인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갖은 노력을 다해 왔지만, 미래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왜 그럴까?

과학은 반복적인 현상 중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에서 운동원리를 찾아 이론화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원리를 알아냈는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사회과학인 경제학이 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아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에 입각한 예측이 의미가 없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를

것' 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미쳤다고 볼 것이 틀림없다. 그럼 이 말이 거짓일까? 그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일 뿐이다. 미래예측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 예측이다. 그래서 경제 예측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채소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값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경제전문가가 말했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미 잘 알려진 운동원리에 입각한 예측은 예측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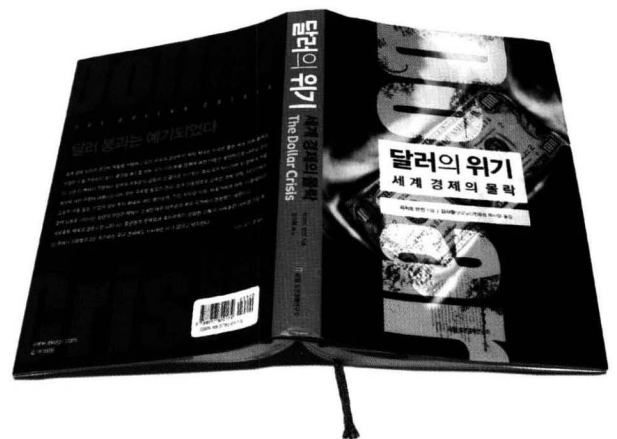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제전문가만 아는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 예측은 틀려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국내 경기가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연말쯤부터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이것이 믿을 만하다고 하자. 그러면 기업은 경기호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증가시킬 것이다. 고용과 투자가 증가하면, 경기는 당연히 살아난다. '당분간 국내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이래서 틀려지게 된다. 경제예측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전문가는 모두 알거나 틀릴 수밖에 없는 경제 예측을 하는 불쌍한 존재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제예측을 다룬 책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다. 모두 아는 사실을 책 속에 담을 수는 없으므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 예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책이 《세계경제의 몰락 : 달러화의 위기》이다. 원제인 'The Dollar Crisis'가 시사하듯이, 이 책은 '달러화의 위기'가 미국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를 몰락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실패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원서가 발간된 것은 2003년인데 그 시기가 좋지 않았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의 초장기 호황을 막 끝내고 구조조정을 거치던 때였다. 미국경제로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인 3~4퍼센트를 계속 기록하다가, 2001년에는 0.8퍼센트로 떨어졌고 2002년에도 1.9퍼센트를 기록하는 데 그쳤었다. 2년 연속 경기가 부진했던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 책이 씌어지고 발간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도 미국경제가 초장기 호황의 후유증에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릴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2004년에는

3/4분기까지 계속 3.5퍼센트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가 갑자기 살아난 것이다. 당연히 미국 경제 위기론은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책도 미국 내에서는 빛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번역하여 출간한 때가 2004년 11월로서, 마침 달러화가 폭락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제법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정책당국자도 한번쯤은 읽어둘 가치가 있는 책이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실증적인 분석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의 경제위기를 거의 모두 섭렵한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의 자료를 동원한 것이 돋보인다. 통계도 들여다보지 않고 함부로 떠들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한국 경제전문가의 풍토에서는 꼭 필요한 접근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감성적인 접근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많은 책이다. 특히 무리한 논리전개가 자주 눈에 띄며, 이 점이 저자의 예측능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세계경제가 몰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인류의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한글**



《세계 경제의 몰락 : 달러의 위기》  
리처드 던컨 지음 | 김석중 옮김 | 국립증권경제연구소 | 390쪽 | 값 18,000원